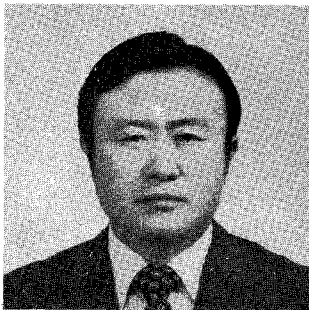


기관단체 소식

■ 축산국장에 지설하씨

정부는 송찬원 농수산부축산국장 후임에 지설하 국립종축원장을 9월24일자로 임명 발령했다.

또 국립종축원장 직무대리에 정순규 국립종축원 사료관리과장을 임명하는 한편, 주·이태리대사관 농무관에 신구범 농업공무원 교육원 교수부장을 임명했다.



(지설하 축산국장)

◇ 지설하 축산국장 약력 ◇

- 충남 출생 (53세)
- 서울대농대졸, 동대학원 농학박사
- 농진청 고령지시험장장
- 축산시험장장
- 농수산부 축산국장
- 국립종축원장

■ 종계장 추백리검색 철저

종계장 추백리병 확인검사 결과 부적합한 종계가 많이 검출되고 있다.

농수산부는 추백리의 발생 및 만연방지를 위해 지난 84. 3. 26에 농수산부 고시제 84-12호 (본지 4월호 p.67 및 10월호 p.116 참조)를 통해 추백리방역 실시요령을 고시, 각 종계장에서 자율적으로 검색을 실시키로 하고 추백리 검사실시 여부확인을 정부기관(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키로 한 바, 최근 각 가축위생시험소 확인검사결과 양성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농수산부는 앞으로 가축위생소의 추백리 확인검사 결과 1%이상 양성반응율이 나타나는 부적격 종계를 사육하고 있는 종계장에 대하여는 종계장의 명단을 월간지를 통해 홍보할 것과 종계등록시 가축위생시험소장의 확인검사필증 첨부를 의무화 할것등을 본회에 협조요청해 온바 있다.

각 종계장에서는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거 가축전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제 3호

농수산부 농촌진흥청은 9월 18일자로 돼지 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경기, 충남, 전북, 제주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어 왔으며, 특히 지난 폭우로 축사내외의 불결 및 방역소홀로 돼지콜레라가 크게 번질 것이 우려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 한국가금문화재 개발연구원 창립



△ 지난 9월 8일 개최된 창립총회

한국가금문화재 개발연구원(원장 無我장용식) 창립총회가 지난 9월 8일(토) 오후 한국투자금융 8층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경과보고에 이어 농가소득증진 현상논문공모심의 결과보고(당선작 없음), 기념특별강연에 이어 장용식원장의 古稀기념축하, 198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기타안건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오봉국교수(서울농대)의 축사와 김영진원장(농촌경제연구원)의 격려사, 고회기념출판물 증정, 장용식선생의 인사, 가족소개 등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축산발전을 위한 축산철학의 밑거름(장용식 저)」 「詳述養鷄飼料學」 증보개정판(장용식 저) 등의 책자가 증정되었다.

■ 가축통계조사 개선협의회 개최

— 효율적인 통계조사업무 위해 —

농수산부는 효율적인 가축통계조사업무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9일(금) 오후 2시 농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가축통계조사 개선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농산통계담당관, 축협, 생산자단체(낙농육우양돈, 양계)관련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각 단체별 가축통계조사내용발표, 농수산통계 사무소 가축통계조사 사례발표 등이 있는 후 효율적인 가축통계 조사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현재 정부는 축산통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각 단체별로 중복 조사되고 있는 가축통계조사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 축산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각 양축농가에서는 가축통계조사업무가 성실히 수행되어 축산정책에 기여도가 높을 수록 안정된 축산업발전이 앞당겨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계농가의 경우는 현재 3, 6, 9, 12월(년 4회) 사육규모별 마리수·호수, 월령별·용도별 마리수, 닭고기 소비량, 1일 계란생산량 등을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제22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회장 설동섭)가 9월 28일 오후 2시 인양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협의회 결과 및 조치사항, 가축질병 홍보실시 및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있는 후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 홍보문제, 88올림픽 마필검역 업무 사전준비 조치 등에 관하여 협의했다.

또 뉴캐슬병 및 전염성후두기관염 방역강화 및 종계장 추백리 검색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 84년 양돈산업안정 세미나 개최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돈용)는 동지부 양돈경영안정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9월 27일(수원)과

29일(창원)에서 「양돈산업 안정의 정착화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종돈개량, 양돈시책, 환절기의 돼지질병, 양돈산업의 안정과 발전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각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 축협, 경매사교육 실시

축협중앙회(회장 이득룡) 가축시장과는 능률적인 경매실시와 경매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8월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북 남원과 순창에서 경매사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시범 경매가축시장의 경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경매사 100명이 참가하였는데, 가축의 자질 평가, 효율적인 경매시설 설치, 외국의 경매가축시장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조합장과 교육생과의 분임토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 유가공협회장에 강성원씨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9월 7일 동협회 회의실에서 회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윤쾌병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회장선출에 들어갔는데, 제 3대 회장으로 강성원씨(서울우유조합장)가 선임되었다.



(강성원 회장)

■ 축협감사에 김춘배씨

김춘배씨(예비역 소장)가 9월24일자로 축협감사에 임명되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광식(농업경제학)박사, 윤여덕(사회학)박사, 김병호(농업경제학)박사를 수석연구원에 임명.

■ 전돈용(양돈협회)회장

미농무성과 돈육가공기술 협의를 위해 9월 5일 출국하였다가 9월13일 귀국했다.

한편 한백용전무는 미국 종돈품평회에 참가한후 종돈검정현황 등을 살피고 9월19 귀국.

■ 강현삼(서울대)교수

9월 6일부터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 관 겸임(84. 9. 6~86. 6. 24)

■ 연구논문집 발간

— 건대대부설 축산경영연구소에서 —

건국대학교 부설 축산경영연구소(소장 한석현) 연구논문집 제 9집이 나왔다.

전국대 축산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동 연구소는 올해 첫번째 사업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이번 논문집을 발간했다.

■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이남재)

동협회는 10월11일 제41차 이사회를 협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85년도 예산수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임원교육, 회원업체 부도에 따른 결손처분, 단미사료업체 당면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 성배영부원장 (농경연)

농업유통실 김정기 책임연구원과 함께 지난 9월16일 출국하여 미국, 캐나다를 방문한 후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

이번 방문은 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영진)이 수행중인 「전국권 농수산물유통개선 기본계획 수립 연구」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방문기간중 해외용역단과의 마무리작업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각종 자료수집도 하고 돌아왔다.

■ 최정옥 박사, 전남대 수의학과로

안양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에서 오랜동안 닭 질병을 연구해온 최정옥 박사가 9월 22 일자로 전북대 수의대교수로 전임되었다.



(최정옥 교수)

■ 제19회 잡지의날 기념식

—한국잡지언론상 시상 예정—

한국잡지협회(회장 조우제)는 매년 11월 1 일을 「잡지의 날」로 정하여 이 날을 기념해오고 있는데 올해로 19번째를 맞는다.

11월 1 일 오전 9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거행될 이번 기념식에는 잡지언론 유공자에 대한 정부표창과 동협회에서 제정한 한국잡지언론상 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잡지는 월 2천 4 백만부가 발

행되어 인구 4천만명을 기준할 때 1.7명당 1 권씩을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월간 식생활 창간



(김보현 본부장)

「월간 식생활」 창간호(9월호)가 나왔다.

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에서 한국민의 식생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영양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간된 것인데, 9월호에는 특집으로 한국인의 식생활을 다룬 '바른 식생활에의 초대, '식생활개선은 왜 해야 하는가' 등을 실고 있고, 와이드 진단으로 '물, 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외에도 건강생활을 위한 기사, 교양물 등을 실었다.

구독료는 년 2만원(583-8985)

■ 사료관리법 개정 회의

—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키 위해 —

농수산부는 효율적인 사료정책을 입안키 위해 지난 10월 4일(목) 오후 2시 농수산부 축산국장실에서 관계관 및 관련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관리법개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본회를(황인옥전무 참석) 위시한 각 생산자 단체에서 참석해 선진축산을 앞당기기 위한 효율적인 사료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여 실질적인 사료관리법 개정 에 대한 공동의견을 모았다.

계란·닭고기 소비는 양계 가족부터